

“확산세 차단·접종률 제고... 고강도 조치 완화”

“경기도 기본소득 홍보비 34억, 바람직하지 않아”

문 대통령,靑 수보회의 모두발언

“상황 진정이 무엇보다 중요... 방역 고삐 더 단단히
백신 접종률도 매우 중요... 목표 인원 더 늘릴 것
방역·경제·민생 모두 지켜내는 새 방역전략 추진”



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며 “최근 백신 접종에 다시 속도를 내면서 40% 이상의 국민들이 1차 접종을

산 백신 개발에 더욱 속도를 내고 글로벌 허브 전략을 힘있게 추진하는 데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고강도의 방역 조치는 단기간에 한시적으로 쓸 수 있는 비상 조치일 뿐 지속 가능한 방안이 될 수 없다”며 “코로나 확산세를 잡아가면서 동시에 백신 접종률을 높여나가야만 고강도 방역 조치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역과 경제와 민생 모두를 지켜내는 새로운 방역전략을 추진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그 희망을 위해 코로나 확산 차단과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가장 안타까운 것은 고강도 방역 조치가 연장되면서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이 생존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것”이라며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나누어 할 무거운 짐으로

인식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다음 주부터 추경 집행을 통해 신속히 피해를 지원하고 금융 부담과 애로를 덜어주는 등 다각도의 지원책을 강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중앙 정부는 지자체의 지원 사업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확산과 거리두기 강화로 우리 경제의 회복세에 지장을 주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며 “몇 달째 개선되던 경제 심리가 주춤하고 나아지던 고용회복 흐름도 다시 둔화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문 대통령은 “서민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도 민생경제에 아주 중요한 일”이라며 “정부는 국민의 삶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 각오를 새롭게 다지며 코로나 대응과 민생안정을 위해 범정부 총력체제로 임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뉴시스

민주 이낙연 전 대표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낙연 전 대표는 9일 이재명 경기지사를 향해 “기본소득 홍보에 34억을 썼는데 그런 일이 계속 생긴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그건 경기도의 업무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t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한 뒤 “미국 언론에 광고까지 해오면 경기도 도민의 삶이 좋아지나. 그건 좀 과하지 않나”라며 “흔히들 ‘도정 캠프’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다. 그런 이야기는 안 듣게 하시는 게 좋다”고 지적했다.

그는 “선관위원장이 모처럼 말씀을 꺼내셨으니까 그 차원에서 정리되면 된다고 생각한다”며 “법적으로는 허용되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상민 당선관위원장은 이 지사가 직책을 내려놓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면서 “지사직 사퇴 자체는 개인의 양심의 문제”라며 “그러나 도정을 뛰어넘는 개인 홍보에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고 재차 지적했다.

이 지사 측이 이 전 대표에게 의원직 사퇴를 요구한 데 대해서는 “무리”라며 “집행기관과 의원은 업무 영역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후쿠시마 원전, 부정식품 발언에 대해 “실언을 넘어서는 망발”이라고 비판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지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 밖에 없다”며 “하나는 코로나 확산을 차단하는 데 전력을 다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여전히 중대한 고비가 지속되고 있다”며 현재 고강도 방역 조치의 완화를 위한 접근 방법으로 위와 같은 2가지의 병행 필요성을 언급했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한 달 이상 이어지고 있음에도 연일 네 자릿 수 신규 확진자 발생 상황이 계속된 데 따른 상황 인식으로 풀이된다. 확산세 차단과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투 트랙’ 방식이 병행돼야 고강도 방역 조치를 벗어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우선 코로나 상황을 진정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특히 2학기 개학을 앞두고 아이들의 안전한 등교 수업을 위해서라도 방역의 고삐를 더욱 단단히 조여야 하겠

끝했고 추석 전 3600만 명 접종을 목표로 나아가고 있다. 집단 면역의 목표 시기도 앞당기고, 백신 접종 목표 인원도 더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백신을 소수의 해외 기업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백신 수급을 마음대로 하지는 못하지만, 확보한 백신 물량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활용해 반드시 목표 달성을 앞당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세계적으로 백신 생산 부족과 공급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문제”라며 “해외 기업에 휘둘리지 않도록 국



전북지역 시·군 의회를 대표하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장들이 9일 전북도의회 브리핑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권 도전 후 지지세 확산에 나서고 있는 정세균 전 국무총리에 대한 지지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힘 있는 대통령 선출해달라는 도민 의지 담아”

도내 시·군의회 의장 12명, 정세균 전 총리 지지

전북지역 시·군 의회를 대표하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장들이 대권 도전 후 지지세 확산에 나서고 있는 정세균 전 국무총리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지지 의사를 밝힌 이들은 강동화(전주), 유재구(익산), 조상중(정읍), 양희재(남원), 김영재(김제), 김재천(완주), 김광수(진안), 박찬주(무주), 김용문(장수), 전남근(임실), 신용근(순창), 문천기(부안) 의장 등 12명이다. 이들은 9일 전북도의회 브리핑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시대의 참다

운 지도자 힘 있는 대통령을 선출해달라는 도민의 의지를 담아 정세균 후보를 지지하게 됐다”며 “강한 대한민국을 정세균과 함께 만들자”고 선언했다.

정 후보에 대해서는 국정 운영 능력과 포용의 리더십을 두루 갖춘 인물로 평가하며, 지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했다.

의장들은 “정 후보는 전북에서 4선, 서울 종로에서 재선 등 6선의 국회의원 고지에 오르고 산지부장관과 국회 의장 국무총리 등을 두루 거친 갖춘

것을 다 갖춘 준비된 대통령”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급선무로 해결해야 할 경제 활성화와 책임질 인물은 실물경제와 국가경제의 철학까지 두루 갖춘 정 후보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 이들은 정세균 후보가 갈등과 대립 구조를 끝낼 포용적 리더십의 서민 후보라는 점도 내세웠다.

끝으로 “정 후보는 흡수자로 태어나 주경야독 끝에 성공한 서민 후보”라면서 “통합과 포용의 리더십을 갖춘 그와 함께 대립과 갈등 분열의 시대를 끝내자”고 역설했다. /유호상 기자

“의료급여수급자 영유아 70% 구강검진 안받아”

이용호 의원



만 6세 미만을 대상으로 하는 영유아 건강검진(일반·구강) 수검률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특히 의료급여수급자 영유아의 70% 이상이 구강검진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그러나 현실은 사회취약계층 영유아 건강관리에 보다 면밀한 관심과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원·임실·순창)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영유아 구강건강검진대상자는 총 644만3,919명으로 이 중 의료급여수급자 대상자(8만7,326명)의 70.4%에 달하는 6만1,470명이 구강검진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가입자 대상자(119만3,364명) 미수검률 64.2%(76만9,685명), 직장가입자 대상자(515만8,229명) 미수검률 54%(278만7,042명)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의료급여수급자 영유아의 10명 중 7명의 구강건강은 관리가 전혀 안되는 상황이다.

특히 같은 기간 영유아 일반건강검진 미수검 현황을 살펴보면 직장가입자 22.8%, 지역가입자 31.8%에 비

해 의료급여수급자 미수검률이 33.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에 이 의원은 “영유아 건강검진은 생애주기 상 아이의 평생을 내다보는 첫 번째 건강검진”이라면서 “그 중요성 때문에 2007년부터 직장 및 지역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급여수급자의 만 6세 미만 자녀를 대상으로 7차례의 일반건강검진과 3차례의 구강검진을 실시하고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검진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그러나 현실은 사회취약계층인 의료급여수급자의 영유아들에게서 일반검진과 구강검진 미수검률이 가장 높고, 구강검진 경우에는 대상자의 70% 이상이 검진을 받지 않았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보살핌과 손길이 필요한 의료급여수급자 영유아들이 오히려 국가의 혜택을 더 받지 못하고 있다”

면서 “그간의 행정편의주의적 영유아 검진안내와 검진기간 연장 등으로는 의료급여수급자 영유아들의 건강을 보장할 수 없다. 의료급여수급자 영유아들의 건강을 지키고 영유아 건강검진 수검률을 높여야 한다. 정부가 이들에게 지속적인 개별 안내를 하거나 언제든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

국힘 호남 사무처당직자 채용

국민의힘이 호남지역의 인재를 영입하고자 광주시장, 전북도당, 전남도당 사무처당직자 공개채용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호남의 해당 시·도에 주소, 출신학교, 경력 등 연고를 가진 자는 학력·연령 및 성별 제한 없이 지원가능하며, 세부 채용정보는 국민의힘 홈페이지(www.peoplepowerparty.kr)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서류접수(우편접수)는 13일 까지, (우)0723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433호 국민의힘 총무국 총무인사팀 인사담당자 앞으로 접수하면 된다. /유호상 기자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전주매일 캠페인

건강한 시민이 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

두 가지

손씻기

마스크착용

일반시민이라면?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씻기
2.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 만지지 않기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마스크 착용
5.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6. 발열과 호흡기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증상이 있으시다면?

1. 등교, 출근 하지마시고 외출 자제
2.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3~4일 경과 관찰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로 문의, 또는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자기 차량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5. 진료의료진에게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 알림

자료: 질병관리청